



가짜뉴스에 대한 감정이 사실 확인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최창식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강사**

가짜뉴스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현상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 가운데 확증편향이나 인지부조화를 통해 가짜뉴스의 선택과 수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지만, 나름의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이 연구는 개인에 의해 지각된 불확실성이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면 추가정보 탐색 의지가 강해진다는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가짜뉴스에 적용, 허위 정보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고찰하고 설명하는 또 다른 접근 틀로써 이 이론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의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불확실성 지각에 연령과 학력, 그리고 경험적 정보처리 성향 등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감정 형성에는 불확실성의 정도와 뉴스 리터러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는 정보처리 성향과 뉴스 리터러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감정이 추가적인 정보탐색 의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관한 향후 연구에 있어 불확실성 관리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KEYWORDS 가짜뉴스, 불확실성, 뉴스 리터러시, 언론 신뢰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7480).

** choics1@pusan.ac.kr

1. 들어가며

2016년 미국, 그리고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큰 사회적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는 ‘가짜뉴스(fake news)’였다(이준웅, 2017).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통해 유통된 가짜뉴스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으며(Allcott & Gentzkow, 2017),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뉴스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출처 미상의 정보들이 이전 대선과 비교해 5배가량 폭증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다(정민영, 2017).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허위 정보의 유통이 선거나 정치적 문제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 허위성과 기사 형식의 모방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는(박아란, 2017) 언론의 취재·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성이 없는 실수 또는 사실 확인의 미흡으로 인한 오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Klein & Wueller, 2017). 또한, 가짜뉴스는 허위적 내용이긴 하지만 전달의 주체가 명확하며 맥락을 통해 거짓 이면에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풍자(satire)’나(Berghel, 2017), 불확실한 현상이나 상황에 관한 확인되지 않거나 그릇된 이야기가 구전(口傳)의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는 ‘루머’와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DiFonzo & Bordia, 2007; Rosnow, 1988; Shibutani, 1966).

개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주로 사회적인 이슈나 공적인 인물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목도가 높은 소재를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사회적으로 전파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Klein & Wueller, 2017). 가짜뉴스에 담겨 유포된 허위 정보가 일으키는 문제는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단순히 잘못 알게 되거나 판단을 그르치도록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거짓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혹의 무차별적 제기와 확산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거나 냉소주의를 증대시키는 등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비정상화를 유발하며, 나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집단 간의 극단화와 대립을 유발하기도 한다(심홍진, 2017). 수년 전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 및 확산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상이 우리 사회 표면에 거칠게 드러난 것은 가짜뉴스가 유발하는 문제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개인 및 법인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 등을 합하여 연간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정민·백다미, 2017).

이러한 이유로 가짜뉴스는 현재도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또한 포털 등 뉴스 유통업자들도 자율적인 게이트키퍼와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손해용, 2018).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의 상충 속에 가짜뉴스에 대한 이러한 법적·자율적 규제의 범위와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황용석·권오성, 2017). 소셜미디어나 카카오톡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개인 간에 또는 소집단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가짜뉴스를 완벽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제도적 논의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가짜뉴스의 확산과 수용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그간 수행되어왔는데, 일련의 연구자들은 개인들의 심리적 태도나 성향이 가짜뉴스 등 허위적 정보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정치적 신념 또는 가치관(예: 엄정윤·정세훈, 2018; van Prooijen, Krouwel, & Pollet, 2015), 정보처리 성향(예: 안지수·이원지, 2011; Bronstein, Pennycook, Bear, Rand, & Cannon, 2019),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예: 노성중·최지향

민영, 2017; 조은희, 2019)나 미디어 리터러시(예: 이정훈·이두황, 2013) 등은 그간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변인으로서 가짜뉴스의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다른 몇몇 연구들은 가짜뉴스 이용자들의 태도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또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와 같은 개념들을 이용하여 설명하려 시도하였다(황용식·권오성, 2017). 이미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골라 읽고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이나(Nickerson, 1998), 자신의 지식 또는 가치관과 배치되는 정보는 일부러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을 일컫는 인지부조화(Festinger, 1957; Festinger & Carlsmith, 1959)는 가짜뉴스에의 노출과 그에 이은 수용과 신뢰, 그리고 배척의 과정을 나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틀로 기능하였다 여겨진다.

이들 기존 연구의 접근이나 발견들은 가짜뉴스 현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은데, 먼저 개인의 태도나 성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개별 요인들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가짜뉴스 수용에 미치는 관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확증편향이나 인지부조화를 통한 접근은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접했거나, 또는 기존에 알려진 사안이라도 그에 대한 가치나 입장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개인이 왜 그러한 정보를 선택, 신뢰하고 수용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김미경, 2019; 노정규·민영, 2012; 안도현, 2020; 이종혁, 2009). 따라서, 가짜뉴스 또는 허위 정보의 인식과 수용을 살피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삼아 개별 요인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을 고찰하는 하나의 접근 틀로서 불확실성 관리 이론(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Brashers, 2001; Brashers, Goldsmith, & Hsieh, 2001)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그간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영향 요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사 형식의 허위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불확실성 인식,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된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영향요인들이 뉴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정보 탐색 의지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 관리 이론이 확장편향이나 인지부조화 등과 더불어 가짜뉴스를 탐구하는 하나의 접근 틀이 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가짜뉴스에 대한 선행 접근 방법들

그간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에의 노출이나 수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일부의 연구들은 개인들의 심리적 태도나 성향을 요인 삼아 정보 노출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고, 또 다른 연구들은 이론적 접근 틀을 바탕으로 이들 변인의 역할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적용된 두 이론 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짜뉴스와 관련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확증편향’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기제 가운데 하나로 확증편향을 꾸준히 지목하였으며(고승우, 2020; Yee, 2020), 학계에서도 이를 통하여 가짜뉴스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이은지·김미경·성동규, 2019). 확증편향에 대해 니커슨(1998)은 “진실인지 불분명한 믿음이나 가설을 부적절하게 고집하는 것”(p. 175)이라 정의한다. 즉, 지식이나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스키마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보다는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증편향은 왜 일부의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를 수용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는 정보의 선택적 노출과 태도의 극화를 보이는지 설명해주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노정규·민영, 2012).

그간 확증편향을 통해 가짜뉴스 현상을 고찰한 연구가 여럿 있었다. 예를 들어 이은지 등(2019)은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와 일반 뉴스 이용자 모두 확증편향을 보이는 가운데, 일반 뉴스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김미경(2019)의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염정훈과 정세훈(2018)의 연구도 주목할 만한데, 가짜뉴스가 자신의 믿음과 상응하는 내용일 경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확증편향은 가짜뉴스와 일반적인 뉴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개인의 확증편향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진위구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

확증편향은 이처럼 개인들의 편향적 뉴스 소비행태와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몇몇 연구들은 이를 이용한 접근의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교생을 대상으로 뉴스 노출효과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안도현(2012)은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인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성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설명으로, 확증편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신념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혀 몰랐거나 미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었던 이슈에 대해서는 확증편향의 존재나 영향을 살필 수 없는 것이다. 확증편향은 또한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반응기제라기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노

정규와 민영(2012)은 정보 이용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확증편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김미경(2019)은 보도의 출처나 내용의 정확성 등 뉴스 자체의 품질에 의해 확증편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확립된 신념이나 가치를 가진 개인이 어느 정도 익숙한 분야의 이슈에 접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확증편향이 어느 정도 타당한 접근 틀로 작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개인의 다른 심리적 요인 및 외부적 조건(예를 들면 뉴스 품질 등)에 의해 그 효과가 조절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겨진다.

가짜뉴스와 관련, 또 하나 빈번하게 언급된 개념이 ‘인지부조화’다. 수용자 차원의 설득 이론 가운데 일관성 이론(consistency theory)의 하나로 제시된 인지부조화는, 인지된 두 가지 사실이 상충할 때 개인은 그 부조화가 일으키는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오미영·정인숙, 2005). 페스팅거(Festinger, 1957)는 이러한 부조화를 회피하는 개인의 선택을 행동 또는 인지 바꾸기, 부조화를 일으키는 인지를 변화시켜 기존 인지를 정당화하기, 새로운 행동이나 인지의 추가를 통해 기존 행동이나 인지를 정당화하기, 그리고 기존 인지와 상충하는 새로운 인지를 무시하기 등 네 가지로 요약한 바 있는데, 그리핀(Griffin, 2003, pp. 211-213)은 정보의 선택과 수용과 관련하여 다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는 ‘선별적 노출을 통한 부조화의 방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념이나 가치와 부합하는 뉴스만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확인을 통한 부조화 해결의 합리화’로, 어떤 선택을 통해 부조화를 벗어났다면 그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정보를 통해 결정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충분한 정당화는 태도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정당화가 어려울 때 자신의 기존 태도를 변화시켜서라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 연구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이들 가운데 첫 번째 가설로, 개인들이 자신을 인지부조화의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가치와 부합하는 정보만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한다는 것이다. 연구마다 다소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는 했지만, 일련의 연구자들은 메타분석 등을 통해 이 가설을 확인하기도 했다(이종혁, 2009).

그러나 인지부조화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의 선택과 수용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어 그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민영(2016)은 뉴스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이 일어나는 것은 인지적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 언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 말하며 보다 통합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종혁(2009) 또한 인지부조화가 뉴스 선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용자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담은 뉴스는 개인적 태도에 기반한 인지부조화를 통해 기피 태도를 유발하지만, 사회적 기대나 규범 등과 같이 집단적 태도를 자극하는 일탈적 뉴스는 회피 의지를 뚜렷하게 유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지부조화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한 뒤 그것의 확산을 살핀 한 연구는 그리핀(2003)이 제시했던 두 번째 가설인 재확인을 통한 합리화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자신의 견해를 바꾼 개인들로부터 매우 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한 개인들이 인지부조화를 유발한 정보를 확산시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반대 정보를 탐색하려는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Wang, He, Xu, & Zhang, 2020).

이러한 지적을 종합하면,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는 뉴스의 내용에 따른 개인의 취사선택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접근 틀로 생각된다. 그러나 뉴스의 내용이 아닌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성향과 같은 요인들이 뉴스의 선택과 회피에 미치는 통합적 영향 등은 이들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뉴스 이용자의 추가적 정보탐색이나 확산 의도를 설명하는 데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접근 틀의 모색이 필요하다.

2) 불확실성 관리 이론과 가짜뉴스

정보의 부재나 불충분으로 인해 야기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여 불안감을 떨쳐내려 한다고 보는 불확실성 감소 이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 Berger & Calabrese, 1975)은 오랫동안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초기 단계 정보탐색과 이용을 설명해 온 접근 틀이었다(Gudykunst, 2005). 그러나 이 이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회피나 선택적 수용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Knobloch, 2008; Kramer, 2004), 이에 비해 비교적 근래에 제시된 불확실성 관리 이론(Brashers, 2001; Brashers, Goldsmith, & Hsieh, 2002)은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 불확실함에 대한 개인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보의 선택과 회피, 그리고 추가정보 탐색 의지를 함께 설명한다.

불확실성 감소 이론은 개인이 지각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추구 의지 또한 더불어 늘어나는 선형적인 관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불확실성 관리 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개인이 지각한 불확실성과 정보 추구 의지가 항상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Afifi & Matsunaga, 2008).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정보나 상황에서의 노출을 통해 불확실함¹⁾을 느낀 개인은 ‘긍정적 감정 반응’(positive emotional response)과 ‘부정적 감정 반응’(negative emotional response)을 보이게 된다. 인지된 불확실성을 이득 또는 희망으로 해석

1) 불확실성 관리 이론에서의 ‘불확실함’(uncertainty)은 어떤 현상이나 사안을 적절하게 해석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lack of information),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복잡하게 존재하여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는 상태(ambiguity)를 포괄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상이나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함(certainty)’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Kramer, 2004, pp. 8-9).

하고 낙관적으로 여기는 개인은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불확실성이 위협이나 손해와 같이 비관적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을 앞서게 된다. 또한, 자신과 무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립적 감정’(neutral emotional response)이, 그리고 이득과 손해가 동등한 경우에는 ‘양가적 감정’(combined emotional response)이 발생하기도 한다(Brashers, 2001, p. 482).

불확실함이 촉발한 감정은 정보 추구하고 관련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불확실성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우세하게 느끼는 정보 이용자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는 정보 이용자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해 당면하거나 예상되는 위협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추가적인 관련 정보의 탐색에 나서게 된다(Brashers, 2001). 그러나 이러한 정보 추구 행동에 관한 다른 설명도 제시된 바 있는데, 크레이머(2004)는 질병이나 실직 등 개인의 손해나 위협에 관한 불확실성과 달리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콘래드와 풀(Conrad & Poole, 1998) 또한 촉발된 비관적 감정과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형적이라기보다는 곡선적 관계라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불확실함으로 인한 손해나 위협이 크다고 느낄수록 인지적 노력을 통해 얻는 보상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기에 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지점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손해나 위협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는 정보 추구를 통한 불확실성 감소 의지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가짜뉴스 노출과 수용 과정에 적용해보면, 가짜뉴스의 형식과 내용 등으로 인해 해당 뉴스가 전달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낀 개인은 자신 기존 신념이나 태도, 성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 과정을 거쳐 일정 정도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촉발된 부정적 감정의 정도에 따라 뉴스 이용자는 각자 다른 정도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탐색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부정적 감정과 추가적 정보탐색의 연관성을 살핀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뉴스로 인해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유사한 뉴스를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견해를 찾아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Weeks, 2015). 뉴스의 저자나 출처에 대한 관찰,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뉴스의 검색 등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에(Kessler, 2016),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뉴스 이용자는 허위 정보에 의해 오도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감정과 정보 추구 의지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은 가짜뉴스의 수용과 확산을 기존의 접근 틀과는 다른 각도로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어떤 요인들이 이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3) 가짜뉴스 수용 영향요인

(1) 정치적 성향 요인

상당수의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허위 정보 유통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기에(Castelo et al., 2019), 다수의 연구가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짜뉴스 수용의 주요한 연관 요인으로 지목하여왔다. 확증편향 또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등 개인의 가치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 대한 반응과 수용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 정치적 성향은(Tandoc, 2019), 간단하게 말해 개인이 가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이나 신념, 그리고 그것의 강도(強度)를 일컬으며, 입수된 정보와 정치적 성향이 상응한다면 해당 정보는

상대적으로 쉽게 수용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그 연관성이 발견된 바 있다.

반 프루이엔과 동료들(2015)의 연구가 한 예로,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인식 및 수용에 정치적인 신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정치적 당파성이 극단에 가까울수록 음모론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제시한 대로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당파적 방향성(좌 또는 우)에 관계없이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연구는 유사한 정치적 당파성과 강도를 가진 개인들의 허위 정보 수용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제시된 허위 정보와 관련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더욱 강한 신뢰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Uscinski et al., 2016). 이들 연구는 정치적인 신념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그것의 강도가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이슈와 관련한 배경지식 등의 변인이 그 연관 관계의 정도를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의 영향은 국내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염정윤과 정세훈(2018)은 뉴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의혹을 품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그러한 정보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도 낮았음을 밝혀냈다. 또한, 김미경(2019)은 이용자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뉴스의 선별적 수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 또는 신념은 뉴스의 선택, 사실 여부의 판단과 해석, 나아가 그것을 전파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온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적 지식으로, 이는 수용자의 관련 지식이 정치 뉴스를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판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김춘식(2015)은 정치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습득된 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처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관독과 해석이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정치 지식의 정도가 중심경로를 통한 처리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적 지식이 많을수록 분석적인 정보처리 가능성도 커져 거짓 정보를 더욱 잘 판별해 낸다는 연구의 결과(Pennycook & Rand, 2019)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배척하는 데 있어서 정치 지식이 항상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발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에 따른 정보의 수용 정도를 살핀 한 연구는, 개인들이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했다(Fazio, Brashier, Payne, & Marsh, 2015). 특히 정보에 담겨있는 알고 있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거나, 익숙한 형태의 정보 속에서 숨겨진 오류가 포착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실과 거짓이 의도적으로 혼합된 정보에 노출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분석적 사고를 적절하게 촉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도 정치 지식과 뉴스 수용의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는데, 정치 지식이 사실을 담은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효과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노성중 외, 2017). 즉, 정치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실을 분별하는 역량이 높아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의 효과가 높아지지만, 오히려 지식과 분석적 사고력이 부정확한 정보를 자신의 신념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치 지식은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를 가려내고 정보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감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감수하거나 허위 정보 수용을 도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정보처리 성향 요인

개인들이 어떻게 습득된 정보를 처리하는가 또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의 판별과 수용을 다룬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빈번하게 주목받아 왔다. 일례로 앞서 논의한 염정윤과 정세훈의 연구(2018)는 팩트체크(fact-check) 뉴스의 수용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고가 개입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뉴스가 제공한 정보의 수용 여부는 개인이 가진 신념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팩트체크의 품질이나 정보원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다면 개인들은 제시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보다 이성적으로 판별하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거짓 정보로 판단된다면 배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이 뉴스의 진위 판별과 수용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개인마다 주어진 정보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보처리 성향 또는 방식을 주목한 연구자들은 ‘이중 처리 이론’(Dual-processing theory)을 그 배경으로 제시한다(Evans, 2008, p. 256). 대표적으로 엡스타인(Epstein, 2012)은 개인들의 정보처리는 분석력과 논리력, 인과관계 고찰 등의 인지적 노력을 수반하는 ‘합리적 체계’(rational system), 그리고 인지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수반되는 감정과 직관을 통해 전체적(holistic)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경험적 체계’(experiential system),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p. 95).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두 경로 가운데 한쪽만 사용되거나, 또는 두 경로 모두가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인지적 사고 욕구가 높은 개인들은 합리적 체계를, 그리고 인지적 노력보다 직관적 판단을 선호하는 개인들은 경험적 체계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보처리의 경로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제시한 엡스타인(2012)의 이

러한 ‘인지적-경험적 자아 이론’(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에 바탕하여, 안지수와 이원지(2011)는 정보처리 성향이 루머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합리적 체계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보다 경험적 체계를 통한 직관적 정보처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루머 등의 허위 정보를 더 쉽게 수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견은 분석적 사고와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사이의 연관성을 살핀 연구의 결과(Bronstein et al., 2019)와도 상응하는데, 브론스타인 등은 독단적 사고에 빠져있거나 종교적 원리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분석적 사고의 정도가 이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분석적 사고 성향이 낮을수록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는데, 분석적 사고를 할수록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지적 능력의 정도는 허위 정보의 수용뿐만 아니라 이후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그들이 접한 정보가 허위임을 알게 되어도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높은 집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De keersmaecker & Roets, 2017). 이는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이 단순히 가짜뉴스의 수용 단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떠한 뉴스에 접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은 그 뉴스를 합리적·논리적으로 해독하여 그것의 진위와 불확실성을 판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그것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뉴스 및 미디어 관련 요인들

뉴스 및 미디어와 관련하여 관련 연구들이 주목한 영향요인들 가운데 대

표적인 것이 언론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용자일수록 뉴스 형식을 차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다른 출처의 뉴스나 추가적 정보탐색을 통해 습득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에 상대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요인 삼아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조은희(2019)는 TV, 신문, 인터넷, SNS 등 아홉 가지 뉴스 미디어에 대한 이용 유형과 신뢰도에 따른 이용자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식별력, 수용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에 대한 신뢰 정도는 가짜뉴스 판별 능력과 부적(負的) 관계에 있었으며, 나아가 수용 태도 또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도 높았다. 다시 말해,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이는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뉴스를 무분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은희(2019)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맥락의 발견도 제시되었는데, 노성종 등(2017)은 일반 뉴스와 가짜뉴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언론에 대한 불신의 정도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즉, 개인들이 가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낮더라도 일반적인 뉴스 또는 가짜뉴스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짜뉴스의 인식과 식별,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에 개인들의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신뢰 정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하나 뉴스 이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초점이 되어온 요인은 뉴스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다. 뉴스와 미디어와 대한 접근과 수용, 그리고 활용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그리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리터러시는(이정훈·이두황, 2013) 가짜뉴스의 수용과 관련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뉴스/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김미경(2019)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기존의 발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의 수용자들은 제시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보도 내용, 부가된 증거나 부연 등 뉴스의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보다 보통의 뉴스에 더 높은 신뢰를 보여, 미디어와 뉴스에 대한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판별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염정윤과 정세훈(2019)의 연구에서도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경우 전달받은 가짜뉴스 콘텐츠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가짜뉴스의 유통과 확산에 있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일정 정도의 영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뉴스 이용 관련 요인들 가운데서는 뉴스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수용 능력 등이 가짜뉴스의 이용과 전파에 영향을 주요하게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치적 성향, 정보처리 성향, 그리고 뉴스/미디어 리터러시와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가짜뉴스의 식별 및 이용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조은희(2019)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학력이 가짜뉴스의 수용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수용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력은 가짜뉴스 식별력과 정적(正的)인 관계로 나타났고 연령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염정윤과 정세훈(2019)은 가짜뉴스 노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가짜뉴스 노출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집어 말하면,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접하게 된 정보들에서 가짜뉴스를 잘 가려낸 것으로, 이는 앞서 조은희의 연구가 발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짜뉴스 식별 능력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가짜뉴스의 수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

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관련 지식 정도를 포함하는 정치적 성향, 두 번째는 합리적 또는 경험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처리 및 수용하는 정보처리 성향,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 및 미디어/뉴스 리터러시 등으로, 이들은 그간의 연구에서 가짜뉴스 인식과 수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요인(예: 정치 지식, 언론 신뢰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따라서 이 요인들에 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불확실성 관리 이론이 가짜뉴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접근 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불확실성 관리 이론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인지된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그 강도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정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추가적 정보탐색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Brashers, 2001). 이를 가짜뉴스 현상에 대입해 추론해 보면, 먼저 가짜뉴스에 노출된 개인은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이슈에 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나 가공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 형식으로 가공한 가짜뉴스는 바로 공정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가 아닌, 편향된 시각의 정보를 담게 된다. 또한, 해당 기사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예: 취재원, 언론사명, 기자명 등)가 없거나 부족할 가능성도 크다. 적절한 이해와 판단을 위한 정보의 부족, 또는 정확한 해석의 어려움과 혼란의 상태는 가짜뉴스에 노출된 개인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인지하게 하기 때문이다(Kramer, 2004).

이어 지각된 불확실성은 그것이 초래할 위협이나 손해에 대한 개인마다 다른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정적 감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Brashers, 2001). 또한, 불확실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감정의 강도도 변화함에 비추어 볼 때(Kramer, 2004), 가짜뉴스로 인해 지각된 불확실성이 클수록 부정적인 감정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H1). 제공된 뉴스가 신뢰할만한 근거나 균형 잡힌 관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용자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며, 이는 다시 해당 뉴스가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위협이나 불안에 대한 예측이 더욱더 어렵다고 판단하게 하여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가짜뉴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개인적 이익이나 희망으로 해석되어 긍정적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연구가 목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 감정과 추가정보 추구 의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부정적 감정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야기된 부정적 감정은 뉴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각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추가정보 탐색에 나서게 할 것이다(Brashers, 2001).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강할수록 불확실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H2). 즉, 제공된 기사만으로는 현재 또는 향후의 사회적 위협이나 혼란에 대한 평가와 예측이 어렵다는 판단이 강할수록 다른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불확실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형성된다.

H2. 부정적 감정이 강할수록 추가정보 탐색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의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등을 고찰한 선행 연구에서 주목한 요인들이 불확실성의 인식에서 추가정보 탐색 의지의 촉발

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크게 정치적 성향 요인(정치 지식 및 정치적 신념), 정보처리 성향 요인(합리적 처리와 경험적 처리), 그리고 뉴스 및 미디어 이용 요인(언론 신뢰도 및 뉴스 리터러시)으로 구분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정치 지식(김춘식, 2015; 노성중 외, 2017; Fazio et al., 2015; Pennycook & Rand, 2019), 언론 신뢰도(노성중 외, 2017; 조은희, 2019) 등 주요 변인들의 영향이 연구마다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요인들이 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 RQ1. 정치적 성향, 정보처리 성향,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RQ2. 인식된 불확실성이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 정보처리 성향,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부정적 감정이 추가정보 탐색 의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 정보처리 성향,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짜뉴스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이어 불확실성에 의해 촉발된 부정적 감정이 추가정보 탐색 의지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 정보처리 성향,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

구는 1회 사례 실험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다. 참여 대상의 모집과 실험의 수행은 리서치 전문 업체 (주)서던포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참여 자격은 뉴스 이용에 필요한 문해력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는 지역별 성비 및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할당표집(quota sampling)하였으며, 전체 참가자 512명 가운데 한 줄 응답(straightlining) 경향이 뚜렷한 1명을 제외한 51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N = 511$).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이 256명 (50.1%), 여성이 255명(49.9%)이었으며, 연령의 산술 평균은 47.23세($SD = 15.47$)였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또는 졸업’이 345명 (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91명, 17.8%), ‘대학원 재학 이상’(67명, 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참여자들의 연령대 및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참가자들의 연령대 및 지역 분포

	서울/인천/ 경기	강원/충청권	경상권	제주/호남권	계
20대	46	9	18	9	82
30대	48	10	20	9	87
40대	52	12	25	12	101
50대	53	11	25	12	101
60대	33	10	20	8	71
70대 이상	30	10	19	10	69
계	262	62	127	60	511

2) 실험의 절차와 분석

온라인 실험에 응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에게 먼저 안내문을 통해 피험자의 권리, 그리고 기본적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참여를 결정한 이후 첫 번째 단계에서 정치 지식, 정치 신념, 정보처리 성향, 언론 신뢰도 및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사전측정 문항들이 순차적으로 제시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에 제작된 처치물(가짜뉴스)을 피험자들에게 노출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사를 읽도록 지시문을 통해 독려하였다. 이어 처치물을 다 읽었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에게 해당 처치물로부터 느낀 불확실성의 정도, 그리고 지각된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 그리고 처치물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 관한 추가정보 탐색 의사를 묻는 문항들이 순차적으로 제공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실험 참여의 종료 후 처치물에 의해 피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처치물에 대한 사후 설명(debriefing), 그리고 원한다면 처치물의 조작 전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과 사용된 처치물 및 문항은 연구자의 소속기관 IRB의 승인을 거쳤으며, 마지막 응답 수집 직후 피험자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예: IP주소, 응답자 번호 등)는 모두 제거하였다. 수집된 응답은 SPSS(ver. 22)와 SPSS Process Macro v3.3(Hayes & Matthes, 2009)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3) 처치물 및 측정 도구

(1) 처치물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될 처치물 제작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정치 분야에서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던 이슈 가운데 2019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당시 ‘태극기 배지’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 모 중앙일간지의 기사를 한 건 선택하였다. 이 기사는 대통령이 회담 석상에서 배지를 착용했느냐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모 정당의 전 대표 법무 특보를 지낸 변호사의 주장과 함께 기자가 취재한 당시의 상황 스케치 및 외교부의 반론도 담고 있어 어느 정도 균형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기사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처치물로 바꾸고자 연구자는 실제 유통되었

던 가짜뉴스와 유사하도록 이 기사에서 내용의 진위와 사실관계 판단을 돕는 언론사명, 기자명, 당시 상황의 스케치, 취재원의 이름, 그리고 이에 더해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바로잡는 외교부의 반론까지 제거하여 처치물을 제작하였다(〈부록〉 참조).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에서 처치물의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처치물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 정도($m = 3.88, SD = 0.62$)는 처치물에서 제거된 내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기사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 평균($m = 3.64, SD = 0.6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153) = 4.48, p < .001$.

(2) 정치 지식

실험 참가자의 정치 지식 측정을 위해 송인덕(2012)이 사용한 척도를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끔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사진을 이용한 두 문항을 제외하고 총 여덟 문항이 피험자에게 제시되었다. 문항들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에 실시되니까?”란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점,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고 다시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m = 3.74, SD = 1.33$).

(3) 정치적 신념

블룬델과 고스초크(Blundell & Gosschalk, 1997)의 정치적 신념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 본인의 이념적 성향과 강도를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형태가 아닌, 시장 및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관여와 관련한 주장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네 분면(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권위주의)으로 측정한다. 시장의 자유에 관한 주장의 예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가, 개인의 자유에 관한 주장의 예로는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가 있다. 총 22개 문항(시장의 자유 14문항, 개인의 자유 8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응답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1 = “매우 반대”, 5 = “매우 동의”)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신념의 비교를 위해 네 분면을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이원화하여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그 정도를 각각 수치화하였는데, 양의 수치는 진보주의, 음의 수치는 보수주의를 의미하며, 점수의 크기는 신념의 강도를 의미한다($m = 2.23$, $SD = 3.50$).

(4) 정보처리 성향

개인이 어떻게 새로이 습득한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안지수·이원지(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합리적 정보처리’와 ‘경험적 정보처리’²⁾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여섯 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일보다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편이다.”(역코딩 문항)는 합리적 정보처리 차원에($m = 3.22$, $SD = 0.73$; $\alpha = .84$), “내가 느낀 사람들의 첫인상은 거의 맞다.”는 경험적 정보처리 차원에 속한 문항이다($m = 3.34$, $SD = 0.55$; $\alpha = .78$).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수집되었다.

(5) 언론 불신(不信)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메이어(Meyer, 1988)가 제시한 언론 신뢰도 측정 척도를 차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언론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라는 앵커(anchor)문에 이어 다섯 쌍의 상반된 평가 진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자는 이 앵커문에 이어지는 “공정하다”와 “불공정하다”와

2) 안지수·이원지(2011)는 ‘경험적 정보처리’ 대신 ‘직관적 정보처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엡스타인(2012)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같은 평가 진술 사이에서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어의 차이(semantic differential) 리커트 척도로 수집되었으며, 5에 가까울수록 불공정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m = 3.88$, $SD = 0.73$; $\alpha = .90$).

(6) 뉴스 리터러시

개인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동기를 측정하고자 'Media locus of control scale'(Maksl, Ashley, & Craft, 2015)을 사용하였다. 총 다섯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예: "부정확한 뉴스를 접하면 나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곤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수집되었다($m = 3.73$, $SD = 0.76$; $\alpha = .70$).

(7) 불확실성 지각

처치물을 접한 개인이 느낀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애쉬와 자버(Ashill & Jobber, 2010)의 'State, effect, and response uncertainty scale'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이 뉴스는 내가 해당 사안을 이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수집되었다($m = 3.49$, $SD = 0.91$; $\alpha = .80$).

(8) 불확실성 감정 평가

인지된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버와 두가스(Buhr & Dugas, 2002)의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가운데 부정적 감정 측정을 위한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끔 '뉴스'를 초점으로 하여 변형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

뉴스를 보고 나니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 등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응답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를 통해 그들이 느낀 감정을 평가하였다($m = 3.71$, $SD = 0.76$; $\alpha = .70$).

(9) 추가정보 탐색 의지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 야기한 추가정보 탐색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카시오폴로와 동료들(Carcioppolo, Yang, & Yang, 2016)의 ‘Uncertainty prefer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 가운데 본 연구의 맥락과 상응하는 아홉 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불확실성 유지’ 차원은 세 문항(예: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서 이 뉴스가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해 더 알고싶지 않다.”), ‘불확실성 기피’ 차원은 여섯 문항(예: “어차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이 뉴스만으로 충분하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로 수집되었다($m = 3.27$, $SD = 0.80$; $\alpha = .87$)

5. 연구 결과

실험을 통해 수집된 응답을 이용, 먼저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가설과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해 처치물에 의해 지각된 불확실성이 어떠한 정도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계별로 주요 영향요인들과 함께 회귀 분석하였다.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먼저 주요 변수인 불확실성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연령과 불확실성 인식의 정도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r = -.15$, $p = .001$).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처치물의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것이라 해석된다. 반대로 학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 = .17, p < .001$),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높게 인식한 것이다. 정치적 신념은 불확실성 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r = -.11, p = .016$), 진보적 성향이 뚜렷할수록 처치물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 강하게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보처리 방식과 관련, 경험적 정보처리는 불확실성의 인식 정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 -.09, p = .036$), 이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할수록 불확실성을 덜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식된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와 관련, 정치적 성향이나 정보처리 성향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가운데 학력($r = .10, p = .022$), 그리고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들 가운데 언론 불신도($r = .14, p = .001$)와 뉴스 리터러시($r = .27, p < .001$) 둘 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언론이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처치물로 인해 인식된 불확실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정보 탐색 의지와는 연령($r = -.18, p < .001$), 정치 지식($r = .12, p = .008$), 이성적 정보처리($r = .22, p < .001$), 언론 불신도($r = .11, p = .009$),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r = .19, p < .001$)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치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습득한 정보를 체계적·이성적으로 처리할수록, 그리고 언론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처치물로 인해 느낀 불확실성을 추가적 정보탐색을 통해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										
2. 학력	-.17***	-									
3. 정치 지식	.25***	.17***	-								
4. 정치적 신념	.26***	-.10*	.12**	-							
5. 합리적 정보처리	.07	.25***	.22***	-.09*	-						
6. 경험적 정보처리	.10*	.01	.14**	.21***	-.05	-					
7. 언론 불신도	-.06	.10*	-.01	-.05	.07	-.01	-				
8. 뉴스 리터러시	.13**	.01	.27***	.26***	.20***	.30***	.21***	-			
9. 불확실성 인식 정도	-.15**	.17***	.03	-.11*	.08	-.09*	.01	.07	-		
10. 불확실성 감정 평가	-.01	.10*	.07	-.02	.04	.02	.14**	.27***	.52***	-	
11. 추가정보 탐색 의지	-.18***	.08	.12**	-.05	.22***	-.03	.11**	.19***	.03	-.05	-
<i>m</i>	47.23	3.92	3.74	2.23	3.22	3.34	3.88	3.73	3.50	3.71	3.27
<i>SD</i>	15.47	0.63	1.33	3.50	0.73	0.55	0.73	0.54	0.91	0.76	0.80

주: *N* = 511.

p* < .05. *p* < .01. ****p* < .001.

2) 불확실성 인식의 영향요인

상관 분석에 이어 주요 요인들이 불확실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RQ1)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 변수로 두고³⁾, 변인들을 정치적 성향 요인 군과 정보처리 성향 요인 군,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 군으로 묶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첫 번째 투입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모두 불확실성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beta = -.097, t = -2.212, p = .027$), 그리고 연령이 작을수록($\beta = -.122, t = -2.786, p = .006$),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beta = .161, t = 3.628, p < .001$) 불확실성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투입된 정치적 성향 요인 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요

3) 성별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더미 코딩하였다.

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보처리 성향 요인이 투입된 세 번째 모델에서는 경험적 처리 성향이 부적 영향($\beta = -.090, t = -2.017, p = .04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를 경험적·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할수록 불확실성을 덜 지각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투입된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변인들 가운데서는 뉴스 리터러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143, t = 2.885, p = .004$). 즉, 뉴스 미디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강할수록 주어진 처치물로부터 강한 불확실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모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직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불확실성을 덜 지각했으며,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은 더 강하게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언론 불신의 정도는 불확실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인 성향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뉴스 정보의 불확실성을 더 강하게 인지하지는 않았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 불확실성 인식 정도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097*	-.112*	-.127**	-.133**
	연령	-.122**	-.128**	-.132**	-.131**
	학력	.161***	.143**	.134**	.146**
정치적 성향	정치 지식		.080	.085	.061
	정치적 신념		-.066	-.042	-.072
정보처리 성향	합리적 처리			.048	.019
	경험적 처리			-.090*	-.126**
뉴스 및 미디어 이용	언론 불신도				-.037
	뉴스 리터러시				.143**
$R^2_{adjusted}$.046***	.051	.058	.070*
R^2_{change}		.052	.009	.010	.015
F		9.276***	6.527***	5.473***	5.239***

주: 회귀식은 잔차의 독립성(Durbin-Watson = 2.02), 잔차의 정규성, 다중공선성(VIF < 10, 공차한계 > .10)을 모두 만족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3)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 평가 영향요인

인식된 불확실성이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들의 영향(RQ2)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감정도 강하게 야기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H1), 세 가지 요인 군에 더해 불확실성 인식 정도를 추가 요인으로 투입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앞의 불확실성 인식 단계와는 달리, 부정적 감정 형성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가운데 학력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성별과 연령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어 정치적 성향 요인들이 투입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정치 지식과 정치적 신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세 번째 모델에 투입된 정보처리 성향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 평가와는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모델에 투입된 뉴스 이용 관련 요인들 가운데서 언론 불신도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스 리터러시($\beta = .307, t = 6.248, p < .001$)는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인지된 불확실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느낀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인식 정도가 투입된 다섯 번째 모델은 불확실성 감정 평가의 약 33%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언론 불신도($\beta = .095, t = 2.502, p = .013$)와 뉴스 리터러시($\beta = .234, t = 5.505, p < .001$)가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인 가운데 불확실성 인식의 정도($\beta = .513, t = 13.520, p < .001$)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노소나 학력,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불확실성의 인식 정도가 부정적 감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지각된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 또한 강하게 야기되며, 이 과정에서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 변인들

이 부정적 감정의 정도에 더불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4. 불확실성 감정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 정도 및 요인들의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003	-.012	-.010	-.039	.029
	연령	.009	-.004	-.005	.001	.068
	학력	.103*	.091	.088	.101*	.027
정치적 성향	정치 지식		.062	.057	.015	-.017
	정치적 신념		-.017	-.019	-.078	-.041
정보처리 성향	합리적 처리			.011	-.058	-.068
	경험적 처리			.017	-.063	.002
뉴스 및 미디어 이용	언론 불신도				.075	.095*
	뉴스 리터러시				.307***	.234***
불확실성 인식 정도						.513***
$R^2_{adjusted}$.005	.004	< .001	.087	.330
R^2_{change}		.010	.003	< .001	.089	.240
F		1.772	1.402	1.023	6.384***	26.108***

주: 회귀식은 잔차의 독립성(Durbin-Watson = 2.03), 잔차의 정규성, 다중공선성(VIF < 10, 공차한계 > .10)을 모두 만족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4) 추가정보 탐색 의지 영향요인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껴진 부정적 감정이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 미치는 영향(H2)과 주요 요인들의 영향(RQ3)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서는 연령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들이 투입된 다섯 번째 모형에서는 연령 외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 지식($\beta = .120, t = 2.542, p = .011$), 합리적 정보처리 성향($\beta = .172, t = 3.800, p < .001$),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beta = .197, t = 3.948,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한편, 불확실성 인식의 정도는 추가정보 탐색 의지와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불확실성 감정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일수록 뉴스와 관련한 추가적 정보탐색에 나설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2, t = -2.774, p = .006$). 이는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수록 추가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며, 따라서 두 번째 연구 가설(H2)은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정치 지식이 많을수록, 정보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추가정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의 인식 정도는 추가정보 탐색 의지와 무관하였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추가정보 탐색 의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및 요인들의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β	β	β	β	β
통제 변수	성별	.032	-.011	-.020	-.038	-.039
	연령	-.171***	-.218***	-.239***	-.235***	-.231***
	학력	.049	.018	-.030	-.025	-.015
정치적 성향	정치 지식		.174***	.141**	.120*	.120*
	정치적 신념		-.009	.019	-.010	-.019
정보처리 성향	합리적 처리			.217***	.181***	.172***
	경험적 처리			-.016	-.058	-.063
뉴스 및 미디어 이용	언론 불신도				.064	.076
	뉴스 리터러시				.158**	.197***
불확실성	인식 정도					.028
	감정 평가					-.142**
$R^2_{adjusted}$.031	.052	.091	.116	.128
R^2_{change}		.036	.025	.043	.028	.015
F		6.382***	6.597***	8.324***	8.415***	7.775***

주: 회귀식은 잔차의 독립성(Durbin-Watson = 1.93), 잔차의 정규성, 다중공선성(VIF < 10, 공차한계 > .10)을 모두 만족하였다.

* $p < .05$. ** $p < .01$. *** $p < .001$.

6.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불확실성 관리 이론(Brashers, 2001; Kramer, 2004)를 바탕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개인들이 인식하는 불확실성의 정도와 불확실성이 야기한 부정적 감정, 그리고 그러한 감정적 평가가 가짜뉴스와 관련한 추가정보 획득 의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짜뉴스 연구의 한 접근 틀로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가짜뉴스의 수용과 관련, 선행 연구에서 논의됐던 영향요인들을 크게 정치적 성향, 정보처리 성향, 그리고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관련으로 나누어 이 요인들이 불확실성의 인식 및 부정적 감정 형성, 그리고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짜뉴스에 노출된 뒤의 불확실성 인식 정도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세 가지와 직관적 정보처리 성향,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RQ1). 여성이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처치물인 가짜뉴스가 담고 있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안을 이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더 여기고 있었다. 가짜뉴스로부터의 불확실성 인식에 있어서 이러한 연령과 학력의 영향은 선행 연구(조은희, 2019)의 발견과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성향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이성적·논리적 접근보다 본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짜뉴스에 노출되면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다(Bronstein et al. 2019). 뉴스 리터러시도 불확실성 인식에서의 유의미한 요인이었는데, 뉴스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성향이 짙을수록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이정훈·이두황,

2013, 김미경, 2019), 불확실성을 강하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 지식의 정도, 그리고 진보 혹은 보수와 같은 정치적 신념은 불확실성 인식의 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즉, 이 연구에 사용된 처치물과 같은 어떤 정치 관련 뉴스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치 지식의 많고 적음은 그 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데 있어 개인의 정치적 지식이 제한적으로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Fazio et al.,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나 보수적 정치 성향의 강도와 불확실성 인식의 정도 사이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그 개입의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관련, 반프루이엔과 동료들(2015), 그리고 어친스키 등(2016)은 당파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음모론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정보가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단계로 가짜뉴스로 인해 생겨난 불확실성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가되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RQ2). 분석 결과, 앞의 불확실성 인식 단계와는 달리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정도였다(H1). 다시 말해, 처치물인 뉴스가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정치적 성향이나 정보처리 성향은 이 단계에서 부정적 감정 형성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 및 미디어 이용 요인들은 부정적 감정 형성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론 불신도는 유의미한 정적 인과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언론을 불신할수록 인식된 불확실성이 더욱 부정적으로 느껴졌다는 뜻이다. 이는 언론에 대해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짜뉴스에 더욱 경계심을 가지며, 전달된 정보를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발견(조은희, 2019)과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도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요인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뉴스의 출처, 취재원의 공개나 균형적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미경, 2019). 크레이머(2004)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개인들에 내재한 ‘각본’(script) 또는 ‘도식’(schema)을 제시한 바 있다(p. 72). 즉, 개인들은 현상이나 이슈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각자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양식이 적용되지 않는 일탈적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느끼며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가짜뉴스의 형식과 내용의 일탈성은 뉴스 리터러시가 높은 피험자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추가정보 추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RQ3), 인구통계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연령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 요인에서는 정치 지식이, 정보처리 성향 가운데서는 합리적 성향이, 그리고 뉴스 이용 요인 가운데서는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정적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관련 분야 지식이 많을수록, 이성적·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뉴스 이용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할수록 전달 받은 정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한편, 예상과는 다른 결과도 발견되었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일수록 추가정보 탐색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2). 불확실성 관리 이론은 개인들이 불확실성을 무조건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된 불확실성을 부정적 감정으로 느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고자 노력하여 그러한 감정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Affifi & Matsunaga, 2008; Brashers, 2001). 즉, 인식된 불확실성이 잠재적인 위협이나 부정적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며,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확실성을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정보탐색에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될수록 추가정보에 대한 추구 의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풀이된다.

첫째, 불확실성 관리 이론은 헬스, 조직,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되어 왔고, 불확실성과 정보 추구에 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설명해온 것으로 평가된다(Berger, 2005). 그러나 이 이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이 전제된 불확실성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하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헬스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의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대량 해고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위협이었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뉴스를 접한 개개인에게는 당면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나 위협이 제한적이라 인식될 경우 불확실성을 안내하는 경향(Kramer, 2004), 그리고 정보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작거나 없다면 정보 추구 의지가 감소한다는 주장(Conrad & Poole, 1998)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즉, 어떤 뉴스에 나타난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해당 사안에 관한 추가적인 관심을 차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요인이 투입된 모형에서 인식된 불확실성이 덜 부정적으로 느껴질수록 정보 추구 의지가 강해진 것은, 처치물이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해당 이슈로 인한 개인적 위협이나 손해의 가능성은 작지만, 불확실하다고 인식된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이성적·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바로 잡으려는 성향이 개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 지식의 수준, 합리적 정보처리 성향,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가 추가정보 탐색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나타났는데, 비록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인식된 불확실성이지만 이 요인들이 추가정보 탐색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가짜뉴스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접근 틀로서 불확실성 관리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간 확장편향이나 인지부조화 등이 가짜뉴스 등의 허위 정보 선택과 수용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길잡이가 되어왔으며, 여러 연구(예: 엄정훈·정세훈, 2018; 이은지 외, 2019; 이종혁, 2009)도 이 이론들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계도 없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두 개념으로는 신념이나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개인의 편향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안도현, 2012) 또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선택 및 수용 과정에서의 편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김미경, 2019; 노정규·민영, 2012; 이종혁, 2009)이 대표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불확실성과 그것에 의한 부정적 감정을 통해 가짜뉴스 현상을 설명하고자 실험과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개인들에게 인식되고 또 받아들여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짜뉴스의 불확실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지각된 불확실성의 정도가 부정적 감정 형성에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혀냈다. 이렇게 가짜뉴스 노출 및 수용을 두 단계로 구분하고 여러 요인을 통해 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개인들의 정보 선택과 배제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불확실성 관리 이론이 가짜뉴스를 고찰하는 주요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이론이 제시한 부정적 감정과 추가정보 추구 의지의 관계(Brashers, 2001)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정보 추구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추측은 처치물인 가짜뉴스가 개인의 손해나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슈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융이나 보건의료, 식품 등 개인의 재산 또는 안전 등에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다룬 가짜뉴스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이 연구는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온 여러 요인을 투입하여 가짜뉴스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과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 그리고 정치 지식, 정보처리 성향,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정도나 뉴스 리터러시 등의 영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요인들의 영향이 가짜뉴스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 감정적 태도 형성, 그리고 추가정보 탐색 의지의 형성 등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남도 발견하였다. 이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이 뉴스에의 노출에서 수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항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차별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현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의 유통과 확산 방지에도 이 연구의 발견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처치물에 대한 불확실성의 인식 정도는 부정적 감정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이 정보 속의 불확실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허위 정보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취재원의 수나 정보 출처, 표현의 편향 등을 기계적으로 탐지하여 그 결과를 정보와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에서 사회적 손실은 물론 개인적 피해를 부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부정적 감정이 추가정보 탐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특정 대상이 입을 막연한 피해보다는 개인의 구체적 피해를 소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의 한계도 없지 않다. 먼저, 앞서 논의한 대로 처치물인 뉴스의 분야가 정치, 그리고 대통령 관련 이슈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사회나 경제 등 다른 분야의 이슈를 더해 연구를 수행했다라면 더욱더 풍부한 결과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한 척도들은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배제한 보건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것을 맥락에 맞게끔 변형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타당성 높고 정교한 관찰과 측정을 위해서는 뉴스 및 미디어 현상에 적합한 척도의 개발과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승우 (2020, 1, 15). 확장편향과 가짜뉴스, 대중매체의 위기. <미디어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517>
- 김미경 (2019). 뉴스신뢰도, 뉴스관여도와 확장편향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52호, 5-48.
- 김춘식 (2015). 사회연결망서비스 이용 동기가 정치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용자 활동의 매개 역할: 인지매개 모델 검증. <커뮤니케이션이론>, 11권 4호, 206-246.
- 노성종·최지향·민영 (2017). '가짜뉴스효과'의 조건 -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가짜뉴스효과'의 견인 및 견제 요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권 4호, 99-149.
- 노정규·민영 (201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226-248.
- 민영 (2016). 선택적 뉴스 이용: 정파적 선택성과 뉴스 선택성의 원인과 정치적 함의. <한국언론학보>, 60권 2호, 7-34.
- 박아란 (2017, 2월).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Fake News(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손혜용 (2018, 1, 29). 인터넷 가짜뉴스, '논란' 표시 부착 추진. <중앙일보>. URL: <http://news.joins.com>
- 송인덕 (2012). <나는 꼼수다> 이용이 대학생들의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TV, 신문, 인터넷 이용 효과와의 상대적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27호, 101-147.
- 심홍진 (2017). <가짜뉴스(Fake News)와 민주주의> (Issue & Review on Democracy 14호). 서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안도현 (2020). 디지털 가짜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장 편향 연구: 경북지역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권 1호, 77-105.
- 안지수·이원지 (2011). 사회적 동조와 개인의 정보처리 성향이 루머 메시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296-320.
- 염정윤·정세훈 (2018).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41-80.
- 염정윤·정세훈 (2019). 가짜뉴스 노출과 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용 동기.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7-45.
- 오미영·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선보스.
- 오세욱·박아관 (2017). 일반 국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Media Issue>, 3권 3호, 1-12.
- 이은지·김미경·성동규 (2019).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대한 뉴스 소비자의 확증편향과 관여도 매개효과: 진짜뉴스와 가짜뉴스 비교.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4호, 765-784.
- 이정훈·이두황 (2013).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의 뉴스콘텐츠 이용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대 뉴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8호, 180-190.
- 이종혁 (2009).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진화론, 인지부조화, 정보 효용성을 바탕으로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241-261.
- 이준웅 (2017). 가짜 뉴스와 사실확인 보도. <관훈저널>, 143호, 33-40.
- 정민·백다미 (2017). <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17-11).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정민영 (2017. 5. 11). 가짜뉴스, 대선 이후의 언론.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54>
- 조은희 (2019). 뉴스 미디어의 이용과 신뢰가 가짜 뉴스의 인식, 식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9권 1호, 180-213.
- 황용석·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권 1호, 53-101.

- Afifi, W. A., & Matsunaga, M. (2008). Uncertainty management theories: Three approaches to a multifarious process. In L. A. Baxter & D. O. Braithwaite (eds.), *Engaging theori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ultiple perspectives* (pp. 117-132). Thousand Oaks, CA: Sage.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 211-236.
- Ashill, N. J., & Jabber, D. (2010). Measuring state, effect, and response uncertainty: Theoretical construct develop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Journal of Management*, *36*, 1278-1308.
- Berger, C. R. (200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future prosp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55*, 415-447.
- Berger, C. R., & Calabrese, R. J. (1975). Some explorations in initial interaction and beyond: Toward a developmental theor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 99-112.
- Berghel, H. (2017). Lies, damn lies, and fake news. *Computer*, *50*(2), 80-85.
- Blundell, J., & Gosschalk, B. (1997). *Beyond left and right: The new politics of Britain* (Working Paper No.1). London, UK: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Brashers, D. E. (2001). Communication and uncertainty man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1*, 477-497.
- Brashers, D. E., Goldsmith, D. J., & Hsieh, E. (2002).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ing in health contex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 258-271.
- Bronstein, M. V., Pennycook, G., Bear, A., Rand, D. G., &

- Cannon, T. D. (2019). Belief in fake news is associated with delusionality, dogmatism,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duced analytic think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8, 108-117.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931-945.
- Carcioppolo, N., Yang, F., & Yang, Q. (2016). Reducing, maintaining, or escalating uncertainty?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our uncertainty preference scales related to cancer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1, 979-988.
- Castelo, S., Almeida, T., Elghafari, A., Santos, A., Pham, K., Nakamura, E., & Freire, J. (2019). A topic-agnostic approach for identifying fake news pages. *Proceedings of the 2019 World Wide Web Conference, USA*. doi: 10.1145/3308560.3316739
- Conrad, C., & Poole, M. S. (1998). *Strategic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 De keersmaecker, J., & Roets, A. (2017). 'Fake news': Incorrect, but hard to correct. The role of cognitive ability on the impact of false information on social impressions. *Intelligence*, 65, 107-110.
- DiFonzo, N., & Bordia, P. (2007). Rumor, gossip and urban legends. *Diogenes*, 54(1), 19-35.
- Epstein, S. (2012). Cognitive-experiential self-theory: An integra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I. B. Weiner (ed.), *Handbook of psychology* (2nd ed.; pp. 93-118). Hoboken, NJ: Wiley & Sons, Inc.

- Evans, J. B. T. (2008). Dual-processing accounts of reasoning, judgment, and social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255-278.
- Fazio, L. K., Brashier, N. M., Payne, B. K., & Marsh, E. J. (2015). Knowledge does not protect against illusory truth.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4*, 993-1002.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stinger, L., & Carlsmith, J. M.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03-210.
- Griffin, E. (2003).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5th ed.). New York, NY: McGraw-Hill.
- Gudykunst, W. B. (2005). An anxiety/uncertainty management (AUM) theory of effective communication: Making the mesh of net finer. In W. B. Gudykunst (ed.), *Theorizing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281-322). Thousand Oaks, CA: Sage.
-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924-936.
- Kessler, G. (2016, 11, 22). The fact checker's guide for detecting fake news.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wp/2016/11/22/the-fact-checkers-guide-for-detecting-fake-news/>
- Klein, D. O., & Wueller, J. R. (2017). Fake news: A leg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et Law, 20*, 5-13.
- Knobloch, L. K. (2008). Uncertainty reduction theory:

- Communicating under conditions of ambiguity. In L. A. Baxter & D. O. Braithwaite (eds.), *Engaging theori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ultiple perspectives* (pp. 133-144). Thousand Oaks, CA: Sage.
- Kramer, M. W. (2004). *Managing uncertainty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aksl, A., Ashley, S., & Craft, S. (2015). Measuring news media literacy.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6(3), 29-45.
- Meyer, P. (1988). Defining and measuring credibility of newspapers: Developing an index. *Journalism Quarterly*, 65, 567-574.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175-220.
- Pennycook, G., & Rand, D. G. (2019). Who falls for fake news? The roles of bullshit receptivity, overclaiming, familiarity, and analytic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88, 185-200.
- Rosnow, R. L. (1998). Rumor as communication: A contextu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unication*, 38, 12-28.
- Shibutani, T. (1966). *Improvised news: A sociological study of rumor*. New York, NY: Bobbs-Merrill, Inc.
- Tandoc, E. C., Jr. (2019). The facts of fake news: A research review. *Sociology Compass*, 13(9), e12724. doi: 10.1111/soc4.12724
- Uscinski, J. E., Klofstad, C., & Atkinson, M. D. (2016). What drives conspiracy beliefs? The role of information cues and predisposi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9, 57-71.
- van Prooijen, J., Krouwel, A. P. M., & Pollet, T. V. (2015). Political extremism predicts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Social Psychological Personality Science*, 6, 570-578.

- Wang, R., He, Y., Xu, J., & Zhang, H. (2020). Fake news or bad news? Toward an emotion-driven cognitive dissonance model of misinformation diffus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0(5), 317-342.
- Weeks, B. E. (2015). Emotions, partisanship, and misperceptions: How anger and anxiety moderate the effect of partisan bias on susceptibility to political mis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5, 699-719.
- Yee, A. (2020, August 22). Recognize m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8/22/at-home/recognize-misinformation-internet.html>

투 고 일 자: 2021년 01월 17일

심 사 일 자: 2021년 02월 09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02월 19일

부록. 처치를 뉴스 기사

“문 대통령은 왜 태극기 배지 안 다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당시 착용한 배지를 두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법무 특보를 지낸 모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네티즌이 “문 대통령이 타국 정상 만날 때 태극기 배지 단 걸 단 한 번을 못 봤다”고 주장한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 배지 하나에도 나라 망신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킷에는 항상 성조기 배지 딱 하나 깔끔하게 달려있다. 문 대통령은 태극기가 아닌 배지를 달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명문가의 당당한 대표 같고 문 대통령은 근본 없는 미개한 어떤 단체의 대표 같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외교에서 중요한 덕목은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밖에 나가서 나라 배지도 못 달 것 같으면 국민 망신 그만 시키고 대통령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냈다.

Abstract

Uncertainty appraisals of fake news and its impact on subsequent information seeking

Chang shik Choi

Lecturer, Office for Education Accredi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fake new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and political problem, many studies have discussed its negative impact and tried to explain what makes people embrace it. Among such studies, some attempts have explained the selection and acceptance of fake news through 'confirmation bias' or 'cognitive dissonance' of news consumers; however, some limitations of these attempts have also been suggested. Thu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uncertainty management theory'(UMT)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accounting fake news acceptance process. In short, UMT suggests that perceived uncertainty necessarily triggers for emotion, and occurred negative or pessimistic emotion leads individuals to seek additional information to alleviate or clear perceived uncertainty. Therefore, it seems UMT is a useful approach to examine and explain the attitude of individuals toward false information such as fake news, rumors, and deceptions. To confirm this inference,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one-shot case study with 511 participants via online. In results, the effect of participants' age,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t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and news literacy on the perception of uncertainty caused by fake news were significant. Also, the degree of uncertainty percep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intensity of negative emotion. Although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negative emotion on the willingness to seek additional information was not confirmed in the current study, it seems the

UMT could further expand future research on fake news and reception of it.

KEYWORDS Fake news, Uncertainty, News literacy, News media credibility